

구분이 필요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작은 일이라도 거시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국민들과 의료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는 의식을 전환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과감하게 주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 학술 및 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둘째, 방사선기술 관련 제도의 개혁이 필요 합니다. 방사선 기술의 전문화는 시급한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셋째, 회원간의 화합을 꾀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뭉쳐야만 하겠습니다. 학회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부문별로 기술·학문을 연구하는 자발적인 모임도 생기고, 회원 권익을 연구하는 모임도 만들고, 많은 인원의 집단보다는 소수가 모인 집담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단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구심점이 뚜렷한 단체에서는 어떠한 쟁점이 돌출 되더라도 원만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료기사법에 있는 의사의 '지도'라는 조항을 고쳐야겠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고, 역시 국민 보건을 방사선사에게 책임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학력의 학제 개편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기술·학문을 발전 연구시켜야 할 석사, 박사의 제도가 생겨야 될 형편이 되어야겠다는 교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내일까지의 '96년도 학술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강연

방사선의학의 발전과 전망

충남대의대 진단방사선과
교수 이 병 철